

##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17-30)

예수님이 28절에서 말씀하셨다. 이 언약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고 하셨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주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다. 육신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면 사단이 절대 못 들어온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짓게 된다. 그래도 못 들어온다. 우리에게 이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센 것이다. 육신적으로 사단이 못 들어오는 것보다 죄를 지어도 사단이 못 들어오니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의 권세이다. 이 피가 언약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유일한 길이다. 한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24시간 만날 수 있다. 오늘 이 제목, 말씀이 참으로 귀하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세상은 이 세상이 끝인줄 알고 방법 수단 싸움 다 동원해서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안을 주셔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는 남아 있다는 눈을 주셨다. 참 감사하다. 이 눈이 있고 없고가 천지차이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런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유일한 가치이다. 그들에게 이 삶이 끝이 아님을 전달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생명 걸고 싸우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뜨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 사명이 우리의 응답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인데, 이걸 안 하고 응답만 받으려면 말이 안된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 받은 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나의 구원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미국에 살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하나 뿐이다.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다. 미국에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낸 것은 미국을 위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미국교회에 부족한 것도 돕고 미국의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것이 미국에 온 이유이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당연하다. 하나님에게는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천명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이 사명이 천명으로 올 때 그때부터 나에게 24시가 되는 것이다. 그 때 많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 1. 언약의 피

약속이 있는 피라는 것이다. 피는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라는 것이다. 이 피로 인하여 죄사함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 말고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다. 그래서 저주에서 나오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징조가 그리스도이다. 아하스왕은 문제를 당해도 기도 안한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준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다. 이 언약의 피가 우리에게 와 있다. 이 피를 누가 원했던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세상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며 떡을 떼며 받아 먹으라고 하셨다.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면서 마시라고 하셨다.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다. 우리가 만일 거기에 있었다면 참 감동적이다. 주님의 의미심장한 메시지

가 들어있는 것이다. 떡이 몸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포도주를 당신의 언약의 피라 하신 것은 피흘리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언약의 죽음이다.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살아나는 약속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그냥 아무나 있는 피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한 피다. 저주에서 나오고 싶으면 반드시 이 피가 있어야 한다. 정말 언약으로 잡으면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이다. 원죄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수 있는 약속의 피이다. 사단의 모든 머리를 깨고 반드시 승리하는 약속의 피이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24시간 누리게 해주는 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을 잡은 자는 그 영혼이 저주에서 나온다. 그리고 길은 이것 하나 뿐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리고 사단 반드시 정복한다. 음부의 권세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절대 못 이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다. 그리스도 삼직, 이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 받았다. 저주와 우리는 사실 관계없다. 사단도 우리와 관계 없다.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사실 사단과는 관계 없다. 자꾸만 그렇게 될것같은 생각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다. 그건 틀린 것이다. 근본적으로 상관이 없다. 이 놀라운 해방과 정복 누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심어놓으셨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중에서 끊겠다고 하셨다. 무슨 피든지 피를 먹는 자는 내 백성에서 끊겠다는 것이다. 11 절에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피를 먹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피로 생명을 설명하려고 하니 이것은 음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려 재단에 뿌려 속죄하게 하겠다고 하셨다. 본래 피를 만든 것이 이것에 쓰려고 만들었다는 것이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성전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언약의 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피흘림이 없으면 효과 없다. 그러면 아마 다시 오셔서 죽으셔야 했을수도 있다. 이 말은 반드시 피 흘리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안 죽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린양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피를 만든 이유이기 때문에 너는 피를 먹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피는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음식 취급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면 너는 내 백성에서 끊어질것이라고 하셨다. 죽이겠다는 것이다. 특별한 목적으로 일부러 만드셨다는 것이다.

이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다. 이 피를 만든 원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게하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기록을 했는데, 날짜를 정해서 이른 아침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지파수대로 드렸다. 그때 피가 나오는데, 그 피를 반으로 나눴다. 반은 제단에 뿌렸다. 나머지 반은 양푼에 담아서 놔뒀다. 그리고 백성을 모은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었다. 그 말씀 읽고 백성들이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이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한 이야기이다. 그것이 출 24:8절에 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때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피인데 무엇에 대한 언약의 피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언약의 피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보증으로 피를 뿌린 것이다. 이것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백성들도 우리도 지키겠다는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우리의 언약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피이다. 이 피로 너의 죄를 사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받으면 된다. 받으면 그때부터 언약의 피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처럼 모든 약속을 피로 정했다. 이 언약의 피의 실제적 시작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이라는 단어로 나온다. 이 때부터 언약의 피제사 드리게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 모든 언약의 피제사를 완성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그 언약의 피라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지금은 믿음의 시대이다. 양을 잡아야 하는게 아니라 그것이 완성되었음을 믿는 시대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의 피 안에서 해방을 누리야 한다. 믿음이 확실히 들어오고 언약이 되기 바란다. 그러면 행복하고 누리게 된다. 24시도 된다. 마음으로 그리스도 고백하면 이 언약의 피가 역사하게 된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다.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그것이 역사한다. 이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는가? 응답을 보고 알수 있다. 제일 확실한 것은 영적 문제 치유되는것보고 알수 있다. 이 언약을 고백하면 무조건 영적 문제 다 낫고, 인생 역전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 속에서 해결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증인이 많다. 지금도 진행중인 사람도 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이다. 다르게 없다. 부족하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다시 오늘도 잡는 것이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거 필요 없다. 이 피 외에는 죄사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도 만들었다. ‘언약송’ 지난 금요일에부터 공개했다. 원래는 어른을 위한 곡, 초등부, 중고등부 위한곡, 유치부 위한 곡, 이렇게 세 버전을 만들려고 했다. 작곡자에게 이것으로 개인이 그리스도를 고백할수 있는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 했다. 어른 것은 당회원들의 의견이 좀 처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중고등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쓴 곡은 괜찮아서 먼저 공개하였다. 이 곡을 받은지가 2-3개월 되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했고 한참 들어봤다. 이 노래가 우리 가슴속에 들어와서 깊은 그리스도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이 주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으로 고백하는 주간이 되기 바란다. 그러면 이 놀라운 피의 권세가 가정과 자녀들과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 2. 우연은 없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것은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이루기 때문에 자동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성취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에 대해 질문했다. 그때 주님이 준 답이 18절이다.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막 14장이고 누가복음은 22장이다. 거기에는 성안에 가면 물 한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유월절을 지내겠다고 말하면 큰 방을 보여줄 것이라고 하였다. 당연히 그렇게 되었다. 제자들이 성안에 가면 물 한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게 아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절대 오차 없이 만나서 주인에게 이야기 하니 딱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는다.

우리는 생각이 중요한데 때로는 생각이 문제이다.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종종한다. 타락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이런 일을 따라가는 과정인데 자꾸 왜 이러냐고 하는게 인간이다. 지금 있는 어려움, 기쁜일, 슬픈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되어진 것이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이다. 그리고 이 많은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물론 어려움 있을 때는 힘들다. 그런

데 우리가 경험한 것을 보면 그 때에 하나님이 진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미래의 중요한 답이 되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움 있을 때 다른 것 필요 없다.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피를 잡고 방해하는 흑암세력을 꺾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한 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딱 한 개다. 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 살리는 것이다. 그 외 모든 일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죄 짓는 것도 때로는 문제가 아니다. 복음 전하는게 문제이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계속해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 천국의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언약을 잡고 방해하는 흑암을 매일 박살 내는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답이 뭐냐면 약속의 피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하나님의 언약의 피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가롯 유다에 관한 것이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고 하셨다. 예수님 자신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간다고 하셨다. 예수님 맘대로 하신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당연히 가롯유다도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알수 없으나 그런 저주의 길이 정해져 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파는 악한 일을 했다. 당연히 하나님 벌을 받을 이유가 있고 벌을 받아도 싸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믿고 구원 받은 불신자도 우연은 없다. 가롯유다도 우연 아니다. 불신자의 대표이다. 전부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까는 것이 중요하다.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피조물이고 종이야. 니 자리를 잘 지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우연은 없고 항상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희망이 온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축복으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이 생긴다. 오히려 역전의 발판이 된다. 새롭게 깨닫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거기서 새출발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다시 출발하면 된다. 그러면 약속의 그 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내 맘대로는 절대 안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주님도 기록하신대로 가셨다고 하였다. 하나님이다. 자기도 기록된대로 가셨다. 하나님도 기록대로 가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성경이 답이 된다. 내 이름은 없지만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이 되는 것이다. 이유를 몰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 반드시 답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신분이고 축복이고 권세이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다. 언약을 잡는 것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다. 결국 거기에 올인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맞추는 것이다.

우연은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언약이다. 언약으로 잡고 고백하고 있으면 우리는 육신적 저주에서도 반드시 해방된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맨날 지는 것 같아도 절대 이기지 못한다. 지는 것 같아도 속았을 뿐,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에게도 24시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 잡기 바란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주간이 되기 바란다.